

인생에 · 있어서 · 자기의 · 사명을 · 확실히 · 정하지 · 못하는 · 불안음 · 가슴에 · 지닌 · 사람을 · 위해

열린무대 40

2001 부산 사랑티켓 참가작

아우라저로 가는 김

2001. 12.16(일)~12.23(일) 평일 7시30분/ 주말 3시,6시

열린소극장 (명륜동 전철역 맞은편)

문의 .극단 열린무대 (051)5555-025

www.openplay.co.kr

*본 공연은 2001무대공연지원사업금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합니다.

1. 아우라지로 가다

아우라지는 험준한 강원도 산간오지에 있는 정선에 위치하고 있다. 그곳을 향해 "시우"라는 한 인물과 시·공간을 넘나드는 여행을 한다.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험준한 위치만큼이나 그 여정도 힘들다

이 힘든 여정을 함께한 열린무대 단원들, 그 외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꼭, "시우" 데불고 아우라지 가자!

2. 명륜지하철역 시대를 마감하다

피부로 와 닿지 않았다. 거의 한달을 소주로 달랬었다. 드디어 이 공간을 떠나만 한다. 열린소극장은 언제나 나를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언제나 반갑게 마주는 친구였는데... 형광등 하나 없는 이 공간을 손때 묻히며 극장으로 만들었던 선배님들에게 고개숙여지고 서로의 몸을 부대끼며 연극을 이해하고, 소주잔 기울이며 연극을 토해 냈던 극단 식구들에 미안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 시간들이 값진 것이라 믿었기에 그 추억들은 아름다움으로 남을 것이다.

3. 또 다시 뜻을 올리자!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는 불안한 가슴을 지닌 사람을 위해!



연출 심 창 신

opensim@hanmail.net

『아우라지로 가는 길』을 끝내며

김원일 원작 「아우라지로 가는 길」을 희곡으로 각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주 인물인 자폐아 시우의 심리묘사였다. 원작에서 시우의 대사는 극히 은폐된다.

그것은 분명 시우의 자폐아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시우의 귀향을 막는, 도시의 악랄한 생존방식에 대한 무언의 저항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시우의 여정이 계속되는 동안, 끊임없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완만하게 펼쳐져 있는 소설 속의 여러 사건들을,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맞게 적절히 arrange 해야함을 의미했다.

이 작품은 도시의 비정한 네온사인 뒤로 쓸쓸히 걷어가는 시우의 그림자 밟기이다. 그 고향으로 가는 처절한 길 위에 뜬 아버지와 할머니를 북극성 삼아 느린 걸음을 옮기는 시우에 대한 연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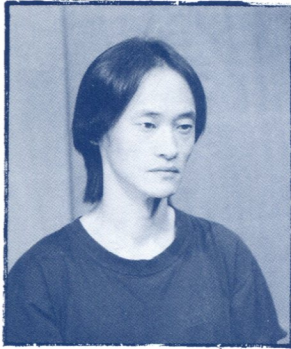
김원일은 어쩌면 고향을 찾아가는 시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결국 시우 앞에 놓인 잘못된 이정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한동안 그를 어떻게 잊어야할 지 고민해야겠다.



재구성 정 일

gary1212@freechal.com

나오는 사람들



사우 하현관
saram4865@hanmail.net



경주 이정비
suit-case@hanmail.net



할머니 안성혜
ansum96@lyco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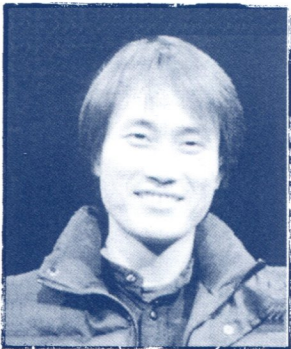
아버지 최 웅
olowoong@hanmail.net



예리 채지하
underha@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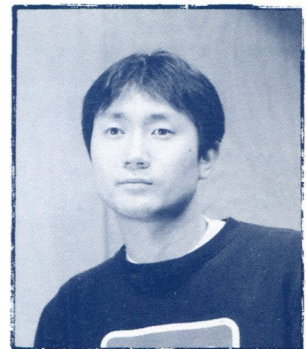
인희엄마 김영림
-may24@hanmail.net



쌍침 김승언
eonie@hanmail.net



짱구 배진만
mohny@dreamwiz.com



키요 김태훈
eagylider@hanmail.net



형사의 오정국

아우라지로

만드는 사람들



예술감독 정봉석
bongja@hitel.net



연출 심창신
opensim@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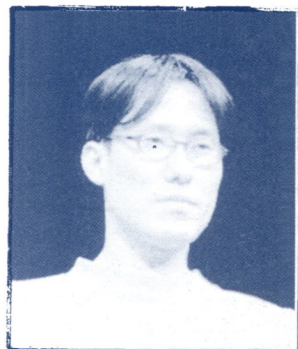
재구성 정 일
gary1212@freechal.com



조연출 이미영
hihikhik@hanmail.net



조명 구현철
illu97@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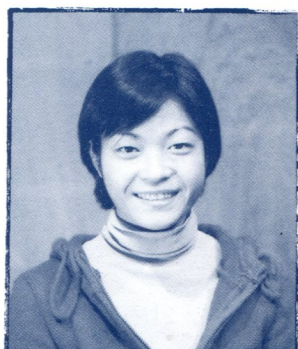
음악감독 이세호
grotesqer@sayclub.com



무대 박태동
soundaction@daum.net



무대 김근수
thespian@lycos.co.kr



음향 손남숙
orangeanne@hanmail.net

도와주신분

안무 : 방영미

사진 : 정애자

택견지도 : 손일환

가는 길